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 지역, 부모의 기대, 부모자녀갈등, 자기효능감의 영향*

박영신** · 박영균*** · 김의철**** · 한기혜*****

초 록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지역, 부모의 기대, 부모자녀갈등, 자기효능감의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서울시와 전국의 6개 도(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에서 각각 도시와 농촌지역 1개 학교씩 표집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920명으로서, 남녀 중학생 640명(도시 336명, 농촌 304명)과, 그들의 부모(도시 672명, 농촌 608명)도 자녀와 짝을 이루어 표집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79\sim.87$ 이었다.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도시 부모는 농촌 부모보다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으며, 자녀와 갈등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도시 청소년은 농촌 청소년보다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 및 객관적 학업성적이 훨씬 더 높았고, 삶의 질은 약간 더 높았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업 기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기대가 매우 높고, 나아가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객관적 학업성적이 높고 주관적 성취지각이 긍정적이었다. 지역은 객관적 학업성적에 대해 영향이 있었으나, 주관적 성취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삶의 질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도 감소시켰다. 지역도 삶의 질에 영향이 있었으나, 지역보다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훨씬 강력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에서의 지역차이 극복 방안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지역차, 학업성취, 삶의 질, 부모의 기대, 부모자녀갈등, 자기효능감

* 본 논문은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2006) 보고서의 일부 데이터를 재분석한 것임.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우리 사회에 있다. 사람을 서울로 보내라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특별시에 보내 대도시에서 성장해야, 보고 듣고 배우는 것도 많고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사회적 표상은 사람들을 서울로 향하게 하고, 서울로 이사할 형편이 안 되면 주변의 도시에라도 몰려들게 한다.

인구의 대도시 유입현상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자녀교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녀교육 때문에 부모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대도시로 이사를 하고, 이사가 어려우면 자녀만이라도 도시의 학교로 보내려는 부모들의 교육열을 농촌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할 젊은 부부들은 진학시점이 되면 서둘러 농촌을 떠나기 때문에, 농촌사회는 더욱 고령화되고 있다. 그나마 농촌에 남아 있는 일부 총각들은 농촌으로 시집을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워 외국 이주 여성들과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자녀교육을 위해 좀 더 교육여건이 나은 도시 또는 도시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거주하려는 강렬한 욕구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정도로 강력하다.

한국 사람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는 이경숙·김종혁·김민남·김부태·윤선진·이상원(2010)이 학부모를 면담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학부모들이 이사를 한다면 자녀교육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겠으며, 자녀교육을 위해 이어나 이별 위장전입 중 하나 이상을 하겠다는 학부모가 다수였고, 교육이주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

교육이주 현상을 검증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오성배(2004)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원인이 지역 효과와 학생의 이동에 영향 받은 결과로 설명되었다. 중학생은 가정배경을 통제한 이후 학업성취도에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고등학생은 여전히 지역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다. 이는 지역 간 교육환경의 차이와, 군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진학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단순히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 차이로 인한 것만은 아니고 농촌의 우수한 학생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농촌의 학령인구 감소와 적정 교육시설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러

한 여건은 다시 농촌의 학령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오성배, 2004). 강태중(2007)의 연구에서도 도시와 농촌 지역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인구이동의 결과를 통제하면 반 이하로 줄어들고, 타 지역으로 인구 전출이 많은 지역의 평균 학업성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농촌에서의 삶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농촌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교육이주도 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하는 농촌의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 현실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차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한 심리적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에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도시생활자에 비해 모든 문화적 교육적 기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교육을 해 나가야할지에 대한 길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 비록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에서는 농촌 지역이 열악하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도 가정에서 어떠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성취와 삶의 질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지역, 부모의 기대, 부모자녀갈등, 청소년 자기효능감의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따른 학업성취와 삶의 질의 차이에 대한 규명이다. 실제로 한국의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와 삶의 질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가정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의 측면 및 청소년의 심리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자녀관계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와 이에 따른 청소년 자신의 교육적 기대, 그리고 부모자녀갈등을 포함한다.

둘째, 지역 변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 청소년 자신의 교육적 기대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력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객관적인 학업성취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성취지각의 측면에서도 분리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셋째, 지역 변인이 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자녀와 갈등, 청소년의 부모와 갈등을 포함하는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계의 질과 청소년의 심리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변인의 영향에 비해 상대적 설명변량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다루는데 기초가 되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부모의 기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부모자녀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의 기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되어야 할 근거는 한국 청소년의 부모지각에서 토착심리를 통해 시사된다. 박영신·김의철·한기혜(2003)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높은 교육열과 지도가 포함된 바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청소년은 부모에 대해 죄송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죄송한 이유로서 순종하지 않음과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침 및 학업에 소홀함이 대표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하고, 부모의 교육적 기대에 따라 학업에 충실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집단무의식처럼 공유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손승영(2009)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요

구와 관계없이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크고, 성적을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녀가 학업 외에 관심을 가질 경우는 부모가 개입해서 제재를 가하고 학업에 몰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부모들은 자녀 사회화 내용이 다원주의 가치에 기초하기 보다는 공부 중심의 경쟁적 사회분위기를 수용하는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박영균·박영신·김의철(2010)이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학업 기대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본인보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와같이 한국 부모들의 교육적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2006)의 연구에서 한국 아버지가 스웨덴 아버지보다 학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국제비교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국 부모들은 행복한 가정을 미래에 가장 이루고 싶은 성취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란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교육적으로 성취하며, 자녀양육을 잘 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표적인 사회적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김의철 외, 2011). 이러한 한국 부모들의 삶의 미래 목표로서 자녀에 대해 걸고 있는 기대는, 현실에서 높은 교육적 열의로 구체화되고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부모의 기대 및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박영신·김의철·정갑순(2004)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를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수준, 자녀 학업에 대한 포부수준 및 자녀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으로 구성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응답한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의 평균을 구해 부모의 기대 수준 변인으로 측정한 바 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경로분석 결과 검증되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기대와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Bandura, Barbaranelli, Caprara와 Pastorelli(199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질수록 자녀의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아졌으며, 증진된 자기조절효능감은 학업성적을 향상시켰다. 동시에 높은 자기조절효능감은 문제행동의 유발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였다.

부모자녀관계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사실

은,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집대성한 Bandura(1997)를 중심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Zimmerman, Bandura와 Matinez-Ponz(1992)의 연구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으면 학업성취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학업성취효능감은 학생의 학업 포부 수준을 높였으며,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켰다.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박영신·김의철, 2003; Kim & Park, 2006)에서도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 핵심변인임이 폭넓게 확인되어 왔다.

2. 부모자녀갈등,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초점을 두고, 지적 차원에서의 학업성취만이 아니라, 정의적 차원의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동시에 다룬다.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박영균 외, 2009; 전신현, 199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이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관심을 집중한다. 박영신·김의철(2008)은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있어 인간관계 중의 하나로서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하며,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청소년 삶의 질을 다루는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 중에 갈등 변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있다. 박영신·김의철·한기혜(2003)의 연구에서 초, 중, 고등학생은 부모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와의 갈등이 점차 증가되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갈등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됨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함을 보여주며,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다룸에 있어 부모자녀갈등이 심도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박영신·김의철·한기혜(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와 갈등의 이유로서 세대 차이와 학업문제가 대표적으로 부각되었다. 최창욱·권일남(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갈등의 원천으로 학업성적, 집안일 돕기, 귀가시간 및 야간외출, 용돈사용 문제,

교우 및 친구관계, 옷차림새, 종교문제, 진로문제, 이성교제 및 이성친구 문제로 분류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자녀 갈등의 내용들로 학업이나 생활이나 여가/기호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수험경쟁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들의 불안이 증가하여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김현철·김은정·민경석(2007)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은 것도 이러한 학업문제와 관련된 부모자녀갈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김현철 외, 2007a).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김현철 외, 2007b)에 의하면, 미국, 독일, 스웨덴의 아버지가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보다 민주적 양육태도를 나타내고,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보다 통제적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높은 학업 기대는 매우 통제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 자녀와 갈등관계를 유발하기 쉽다(박영균 외, 2010). 뿐만 아니라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화과정에서 학업성취를 중요시하고 경쟁논리를 내면화시킨다. 미국, 독일, 스웨덴 부모들에 비해 한국 부모들의 자녀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현철 외, 2007a).

한편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기여하는 변인임은 Bandura(1997)에 의해 폭넓게 정립되었다. 선행연구들(Bandura, 2006; Zimmerman & Cleary, 2006)은 청소년의 발달과 성공적인 적응 및 변화를 위해서 자기효능적 신념이 핵심적 자원이 된다는 사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효능감에 의해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면역체계가 증진되므로(Wiedenfeld, et al., 1990), 자기효능감이 신체적 건강의 차원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삶의 질에 종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기효능감이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에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박영신·김의철·박영균(201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강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상 중 하의 사회계층을 포함하는 가정에서 초, 중, 고, 대학생 표집한 박영신·김의철(2009)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도 기여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서 초등학생(박영신 외, 1999)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나 중학생(박영신 외, 2002)을 대상으로 인과모형을 검증하였을 때 모두,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임을 밝혀준다(Park, 2008).

3. 도시와 농촌 지역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차이

학업성취나 삶의 질에 대한 교육심리학 분야의 연구들(Park & Kim, 2004)이 누적되어 왔지만, 이와같이 밝혀진 심리적인 역동들이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차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검토가 없었다. 그동안의 대부분 연구 결과들은 도시 청소년을 표집하여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 변인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 번거롭게 구태여 농촌 청소년을 표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 청소년이 지역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부분 연구에서처럼 대도시 청소년만 표집하여 농촌 청소년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의 법칙으로 적용하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농촌 지역은 도시와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환경 등 삶의 여건에서 눈에 띄는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생태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심리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 지역차 변인에 대해 관심은 여러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의 방식이 일차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의 예로서,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이 최근까지 계속 확인되어 왔다. 강상진(2010)이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2010년까지 전국대상 도시규모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점수를 종단적으로 비교한 바 있다. 도시규모를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의 네 지역으로 분류하여,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각각의 10년간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읍면지역은 다른 세 지역에 비해 매우 큰 격차로 낮은 성적분포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15년

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김성숙(2010)이 2009년 전국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지역규모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서 모두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낮은 학력을 보였다. 성취도를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로 분류하였을 때, 읍면지역은 우수학력의 비율이 낮았고 기초미달의 비율은 높았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모든 과목에서 읍면지역은 기초미달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지역 간 학력격차가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만이 아니라 삶의 질 측면에서도 지역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 김선업(1995)이 거주지역별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청소년들보다 생활전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더 많았고 불만족하는 비율은 더 적었다. 민무숙(1993)이 고교생 또래문화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집단활동, 성문화, 오락유희적 활동 등에서 서울과 농촌 청소년들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도, 지역에 따른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

전국 5개 도의 도시와 농촌지역 중학생 5,504명을 비교한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의 연구에서, 도시 청소년은 농촌 청소년보다 학업에 대한 기대와 학업성적이 훨씬 좋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만족도도 더 높았다($p < .001$). 도시 청소년들이 농촌 청소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욱 성취지향적($p < .001$)으로 인식했고,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청소년은 농촌 청소년보다 자기효능감의 7개 하위변인의 평균이 모두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 심리특성, 학업성취도 및 삶의 질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는 심리와 행동 변인들 간의 관계를 도시 및 농촌 지역 청소년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검증하여, 이러한 변인들 간의 역동과 관계 패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활만족도 형성과정에 대한 지역별 패턴을 검토한 연구들이 있다.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및 사회환경의 영향을 도시와 농촌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한 바 있다. 또한 박영신·김의철·김영희·민병기(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 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매개변인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변인들간의 역동이 도시 초

등학생만이 아니라 농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비록 경로계수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관계패턴은 일치하였다. 박영신·김의철·민병기(2002)는 농촌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와 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LISREL 분석하였을 때 동일한 패턴이 확인되었다. 즉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간접효과도 있었다.

동일한 경로모형으로 도시와 농촌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을 때 변인들 간에 같은 패턴의 결과를 보인다고 해서 도시와 농촌 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은 도시나 농촌 청소년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의 원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정도나,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셋째로는 위와는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서, 여러 변인들과 더불어 지역변인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지역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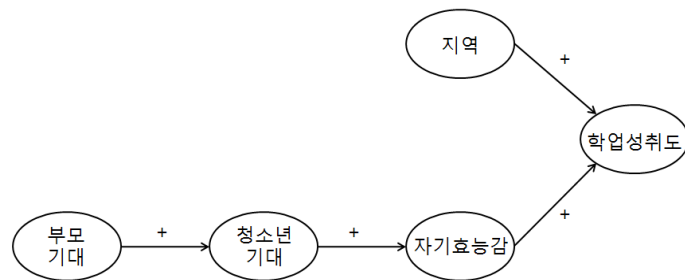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박영신·김의철·김영희·민병기(1999)에서와 같이 하나의 동일한 모형을 도시 자료와 농촌 자료 각각으로 검증해서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두 번째 방식이 아니라, 모형에 직접 지역 변인을 투입하여,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 변인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과 기여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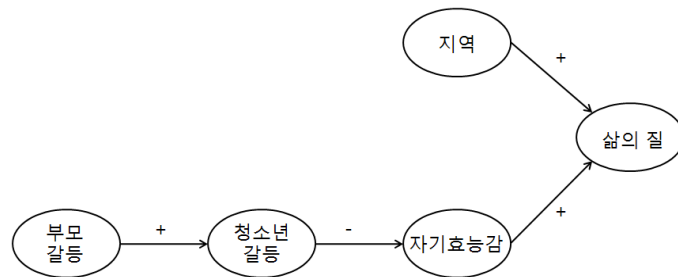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세 가지의 연구내용 중에 첫째에 해당하는 지역별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 및 관련변인들에서의 차이 검증은, 도시와 농촌 지역별 t-검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연구내용의 둘째와 셋째에 해당하는 부분, 즉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에 대한 지역, 부모자녀관계, 청소년 자기효능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경로모형을 아래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에 토대하여, 지역 변인,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교

육적 기대와 갈등 변인, 자기효능감 변인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 1]은 청소년 학업성취도에 대한 경로모형으로서, 지역의 영향과 청소년 심리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 영향의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모형이다. 지역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즉 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는 청소년 자신의 교육적 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청소년 자신의 교육적 기대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즉 가정환경으로서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할수록, 청소년 자녀도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내면화하고, 청소년이 이렇게 높은 학업기대를 갖고 있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림 1] 청소년 학업성취도에 대한 경로모형



[그림 2]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경로모형

[그림 2]는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경로모형으로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그림 1]과 같은 패턴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경로모형을 통해 지역의 영향과, 부모자녀관계 및 청소년 심리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 분석하

고자 하였다. 지역은 학업성취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에 대해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삶의 질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지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환경 변인으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갈등 지각은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갈등 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청소년의 부모와 갈등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갈등을 많이 경험하면 자녀도 부모와 갈등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도 감소시킬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해 서울과 전국 도별로(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총 7개 지역에서 중학교를 표집하였다. 5개 각 도별로(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1개의 도시와 1개의 농촌 지역이 표집되었으며, 각 도시와 농촌에서 1개 학교씩 표집하였다. 도시는 행정구역상 ‘시’로 표기된 곳들이었으며, 농촌은 ‘시’가 아닌 ‘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읍’ ‘면’ 단위의 지역이었다. 이 연구에서 도시로 서울에서 2개교(강남지역 1개교, 강북지역 1개교) 추가되고, 농촌은 제주도에 1개교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전국의 7개 도시 중학교와 6개 농촌 중학교가 표집되었으며, 총 13개 중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표집된 모든 도시와 농촌에서 1개 학급씩 선정하여, 중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표집되었다. 응답한 질문지 중에 학생과 부모 또는 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및, 비록 세 사람이 모두 응답하였어도 많은 문항에 응답을 빠뜨린 경우 등 불성실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총 1,920명으로서, 남녀 중학생 640명

(도시 336, 농촌 304)과, 그들의 아버지 640명 및 어머니 640명이 분석대상이었다. 따라서 도시 1,008명, 농촌 912명으로 구성되었다.

중학생의 연령 분포는 12~15세로, 평균 13.66세(도시 13.53세, 농촌 13.81세), 중앙치와 최빈치는 모두 14세였다. 부모의 연령 분포는 32~59세(도시 32~59세, 농촌 33~58세)였다. 연령 평균은 42.90세(도시 43.114세, 농촌 42.63세), 부모 연령의 최빈치는 41세, 중앙치는 43세였다.

<표 1> 분석대상

지역	청소년				부모			계
	남	녀	무응답	계	아버지	어머니	계	
도시	152	181	3	336	336	336	672	1,008
농촌	137	161	6	304	304	304	608	912
계	289	342	9	640	640	640	1,280	1,920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제작한 것이며, 박영균·박영신·김의철(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다. 질문지는 응답대상에 따라 청소년용 질문지와 부모용 질문지로 구분되었다.

청소년용 질문지는 청소년 기대, 청소년 갈등,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삶의 질 변인을 포함하고, 이외에 배경정보들로 구성되었다. 배경정보로는 연령, 성별, 사회계층이 포함되었다. 사회계층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이 속하는 집단을 최상류층에서 극빈층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기대 변인은 앞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 본인의 기대를 청소년들에게 직접 질문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4점 척도(고졸, 대졸, 석사 졸, 박사 졸)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값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기대 변인 경우는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므로 Cronbach α 신뢰도를 구하지 않았다.

청소년 갈등 변인은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과 관계적 갈등을 다루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7개 문항이었다(문항 예: 부모님과 대화를 포기함).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답지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부모와 갈등을 지각하는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갈등 변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 으로서 양호하였다.

자기효능감 변인은 Bandura(1995)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하위변인 중에서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문항 예: 일이 엉망이 되고 있을 때에도 얼마나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까?) 답지는 1(전혀 잘할 수 없다)에서 5(매우 잘할 수 있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값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효능감 변인의 신뢰도는 $\alpha = .79$ 이었다. 박영균·박영신·김의철(2010)의 연구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구한 결과는 $\alpha = .81$ 로 거의 비슷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객관적 학교성과와 주관적 성취지각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객관적 학교성적 변인은 학교에서의 평균성적을 5점 척도(수, 우, 미, 양, 가)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된 반응은 역산문항 처리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주관적 성취지각은 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5점 척도(매우 높은 성취, 약간 높은 성취, 보통, 약간 낮은 성취, 매우 낮은 성취)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관적 성취지각도 객관적 학업성과와 마찬가지로 역산문항 처리하였다.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삶의 질은 청소년이 지각한 삶에서 행복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를 연구한 결과(김의철·박영신, 2004)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화목한 가족관계, 경제적 여유, 여가생활, 자기조절 등으로,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자기조절, 학업성취, 원만한 인간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요인, 화목한 가정 등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토대하여 이 연구에서 청소년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가정의 화목, 경제적인 여유, 개인적인 성취, 자기조절을 다루는 총 16개 문항이었다(문항 예: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답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값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삶의 질 변인의 신뢰도는 $\alpha = .87$ 로서 비교적 양호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에는 부모 기대, 부모 갈등 및 배경정보를 포함하였다. 배경정보로는 연령, 성별, 가정경제수준, 사회계층 지각이 포함되었다.

부모 기대 변인은 앞으로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부모 집단에게 직접 질문한 것이다. 청소년용 질문지의 청소년 기대 변인과 마찬가지로 4점 척도(고졸, 대졸, 석사 졸, 박사 졸)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 기대 변인은 아버지가 지각한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와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를 각각 응답한 것을 합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부의 기대 1개 문항과 모의 기대 1개 문항 평균을 구하였으므로, 부모 기대 변인에 대해서는 Cronbach α 신뢰도를 구하지 않았다.

부모 갈등 변인은 자녀와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관계적 갈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문항 예: 자녀와 거리감을 느낌). 부모 갈등 변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응답한 자녀와의 갈등의 정도를 합하여 평균을 구한 것이다. 부모갈등 변인의 신뢰도는 $\alpha = .87$ 로서 비교적 양호하였다.

지역 변인은 학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에서 농촌이 1로, 도시가 2로 처리되었다.

3. 실시 및 분석방법

서울과 전국 도별로(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도시와 농촌지역 중학교를 표집함으로써, 총 13개 중학교(도시 7개, 농촌 6개) 중학교가 선정되었다.

각 학교에서 1개 학급씩 표집하여, 학생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협조 하에, 수업시간 및 단체활동시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중학생들이 집에서 각자 실시하여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였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대상 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를 기초로 첫째, 측정변인의 신뢰도가 검토되었으며, 배경정보들을 빈도분석하였다. 둘째, 도시와 농촌 부모 및 청소년의 측정변인들에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차를 독립

변인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경로모형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경로분석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종속변인을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 각각으로 분리하여 검증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객관적 학업성적과 주관적 성취지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지역별 학업성취와 삶의 질 관련 변인의 차이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관련 변인 중에, 부모와 관련된 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 부모와 농촌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기대에서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를 보면,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을 보면 도시 부모들이 농촌 부모보다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의 자녀와 갈등에서 도시 부모와 농촌 부모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그러므로 도시 부모와 농촌 부모는 중학생 자녀와 갈등을 느끼는 정도에서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표 2> 도시와 농촌 부모가 지각한 자녀관련 기대와 갈등의 차이

종속변인	독립변인	N	Mean	SD	t
부모 기대	도시 부모	336	2.92	.81	6.42 ***
	농촌 부모	301	2.52	.79	
부모 갈등	도시 부모	331	2.18	.62	.97
	농촌 부모	299	2.13	.63	

*** $p < .001$

한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에 대한 기대, 부모와의 갈등,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삶의 질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와 농촌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기대에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도시 청

소년이 더욱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농촌 청소년보다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도시와 농촌 청소년이 지각한 기대, 갈등,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 차이

종속변인	독립변인	N	Mean	SD	t
청소년 기대	도시 청소년	330	2.54	.82	4.17 ***
	농촌 청소년	293	2.29	.71	
청소년 갈등	도시 청소년	329	2.27	.91	1.96 *
	농촌 청소년	299	2.13	.81	
자기효능감	도시 청소년	334	3.06	.70	.34
	농촌 청소년	302	3.04	.78	
객관적 학업성적	도시 청소년	321	3.69	.95	4.57 ***
	농촌 청소년	287	3.33	1.03	
주관적 성취지각	도시 청소년	318	3.40	.99	1.20
	농촌 청소년	289	3.30	1.02	
삶의 질	도시 청소년	332	3.59	.58	2.33 *
	농촌 청소년	298	3.47	.62	

* $p<.05$, *** $p<.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p<.05$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부모와의 갈등을 약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에 대한 기대만큼 지역차가 크지는 않았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지역차가 없었다($p>.05$). 즉 도시 청소년과 농촌 청소년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효능감 수준에서는 거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는 객관적 학업성적과 주관적 성취지각의 두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먼저 객관적 학업성적에서의 지역차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도시 청소년은 농촌 청소년보다 객관적인 학업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주

관적으로 지각하는 성취지각에서는 지역차가 없었다($p>.05$). 따라서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의 정도에서는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삶의 질 경우에 지역차는 $p<.05$ 수준의 유의도를 보였다. 집단별 평균을 보면, 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도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약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학업성적만큼 지역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 학업성취에 대한 지역, 부모와 청소년 기대, 자기효능감의 영향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역, 부모와 청소년의 기대,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변인은 두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즉 객관적 학업성적 및 주관적 성취지각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경로분석과 효과분석을 하였다.

먼저 〈표 4〉는 학업성취도, 지역, 부모 기대, 청소년 기대, 자기효능감 변인들간의 상호상관을 구한 결과이다. 학업성취도는 객관적 학업성적과 주관적 성취지각으로 분리하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객관적 학업성적 경우에, 청소년 기대 및 부모 기대와는 모두 $r=.30$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객관적 학업성적과 지역 변인의 상관은 다른 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관계의 정도가 낮았으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주관적 성취지각은 청소년 기대, 부모 기대, 및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객관적 학업성적보다는 상관의 강도가 낮았다. 객관적 학업성적과 현저한 차이는, 주관적 성취지각 경우에 지역 변인과는 무상관을 보인 점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차이는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성취에 대한 지각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지역 변인은 객관적 학업성적만이 아니라, 부모 기대 및 청소년 기대와도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청소년 기대는 부모 기대와 매우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청소년 기대는 자기효능감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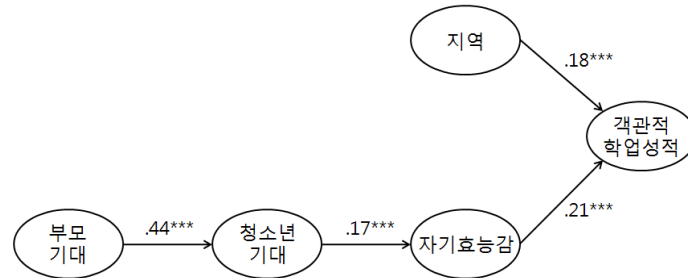
<표 4> 학업성취도, 지역, 부모와 청소년 기대, 자기효능감의 상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객관적 학교성적	1.00					
② 주관적 성취지각	.48 ***	1.00				
③ 지역	.18 ***	.05	1.00			
④ 부모 기대	.30 ***	.22 ***	.25 ***	1.00		
⑤ 청소년 기대	.35 ***	.29 ***	.16 ***	.44 ***	1.00	
⑥ 자기효능감	.21 ***	.10 *	.01	.05	.17 ***	1.00

* $p < .05$, *** $p < .001$

[그림 3]은 청소년의 객관적 학업성적에 대한 경로분석을 한 결과이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GFI=.96으로 매우 높았다. 경로분석 결과, 지역이 객관적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P=.18$ 로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이 객관적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약간 더 높은 값으로서 $P=.21$ 이었다. 부모의 자녀학업에 대한 기대가 청소년의 학업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P=.44$ 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다.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기대는 자신의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할수록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이렇게 학업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객관적 학업성적이 높았다. 한편 도시와 농촌 지역의 거주 여부도 청소년의 객관적인 학업성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즉 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학교에서의 성적이 현저히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이 객관적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객관적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보다 강도가 낮았다.



[그림 3] 청소년 객관적 학업성적에 대한 경로분석

<표 5> 청소년 객관적 학업성적에 대한 효과분석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부모 기대 → 청소년 기대	.44 (12.47)***	-	.44 (12.47)***
→ 자기효능감	-	.08 (4.16)***	.08 (4.16)***
→ 객관적 학업성적	-	.02 (3.30)***	.02 (3.30)***
청소년 기대 → 자기효능감	.17 (4.41)***	-	.17 (4.41)***
→ 객관적 학업성적	-	.04 (3.43)***	.04 (3.43)***
자기효능감 → 객관적 학업성적	.21 (5.45)***	-	.21 (5.45)***
지역 → 객관적 학업성적	.18 (4.70)***	-	.18 (4.70)***

*** $p < .001$, ()는 t 값

<표 5>는 청소년 객관적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결과이다. 부모 기대는 청소년 기대에 대해 매우 높은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도 학업기대 수준이 매우 높고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모의 기대는 청소년 기대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기대가 청소년 기대 및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객관적 학업성적에도 의미있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물론 효과크기가 크지 않았지만 $p < .001$ 수준의 유의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고, 나아가서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기대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청소년의 객관적 학업성취에 대해서도 간접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청소년의 학교에서 성적을 향상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객관적 학업성취에 대해 .21의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한편 지역도 객관적 학업성취에 대해 .18의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자기효능감의 효과보다는 적었다.

한편 청소년의 주관적 성취지각에 대해 경로분석을 한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GFI=.97$ 로서 모형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계수들을 보면 부모 기대에서 청소년 기대로 연결되는 경로가 $P=.44$ 이고, 청소년 기대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P=.17$ 로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에서 주관적 성취지각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P=.10$ 의 값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지만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지역 변인이 주관적 성취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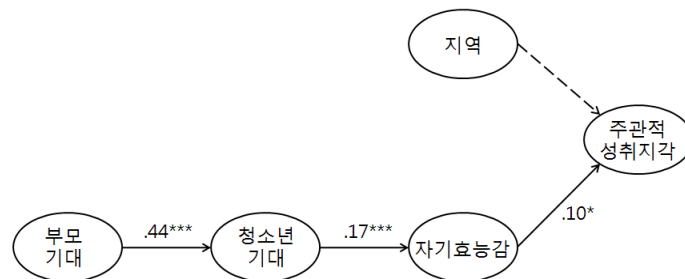
그러므로 [그림 4]는 부모가 자녀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청소년도 자신의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부모의 기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증진된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기대는 자신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며,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성취지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객관적 학업성취를 종속변인으로 한 [그림 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의 거주 여부가 청소년의 객관적인 평균 학업성취에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그림 3 참조), 주관적인 성취지각에는 아무런 의미있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6〉은 청소년 주관적 성취지각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부모 기대는 청소년 기대에 대해 직접효과가 .44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하고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대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역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부모기대는 청소년 기대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주관적 성취지각에 대해 효과크기가 크지 않지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청소년 기대 경우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직접효과가 .17로서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청소년 기대가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주관적 성취지각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도 크지는 않았지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성취지각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지역 변인은 [그림 4]의 경로분석과 일치하여 <표 6>의 효과분석에서도 주관적 성취지각에 대해 의미있는 효과가 없었다($p > .05$).



[그림 4] 청소년 주관적 성취지각에 대한 경로분석

<표 6> 청소년 주관적 성취지각에 대한 효과분석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부모 기대 → 청소년 기대	.44 (12.47)***	-	.44 (12.47)***
→ 자기효능감	-	.08 (4.16)***	.08 (4.16)***
→ 주관적 성취지각	-	.01 (2.11)*	.01 (2.11)*
청소년 기대 → 자기효능감	.17 (4.41)***	-	.17 (4.41)***
→ 주관적 성취지각	-	.02 (2.14)*	.02 (2.14)*
자기효능감 → 주관적 성취지각	.10 (2.45)*	-	.10 (2.45)*
지역 → 주관적 성취지각	.05 (1.21)	-	.05 (1.21)

* $p < .05$, *** $p < .001$, ()는 t값

3. 삶의 질에 대한 지역, 부모자녀갈등, 자기효능감의 영향

<표 7>은 삶의 질과 지역, 부모와 청소년 갈등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삶의 질은 청소년 갈등 및 부모 갈등과 부적 관계에 있었다. 자기효능

감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삶의 질은 지역 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상관의 강도는 낮았다. 지역 변인은 삶의 질 외의 세 변인 즉 부모 갈등, 청소년 갈등, 자기효능감과 모두 무상관을 보였다.

부모 갈등은 청소년 갈등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자기효능감과는 무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는 달리 청소년 갈등은 자기효능감과는 약하지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7> 삶의 질, 지역, 부모와 청소년 갈등, 자기효능감의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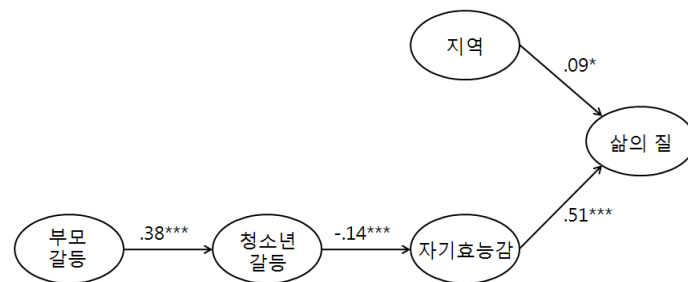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① 삶의 질	1.00				
② 지역	.09 *	1.00			
③ 부모 갈등	-.14 ***	.04	1.00		
④ 청소년 갈등	-.22 ***	.08	.38 ***	1.00	
⑤ 자기효능감	.51 ***	.01	-.03	-.14 ***	1.00

* $p < .05$, *** $p < .001$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한 결과, $GFI=.98$ 로 매우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경로계수들을 보면, 부모 갈등은 청소년 갈등에 대해 $P=.38$ 의 높은 정적인 값을 보였다. 그런데 청소년 갈등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P= -.14$ 의 부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대해 $P=.51$ 의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한편 지역변인은 삶의 질에 대해 유의한 정적인 계수를 보였지만, 경로계수 값의 크기가 매우 작았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역의 영향력보다 훨씬 강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5]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 대해 느끼는 갈등이 클수록 청소년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갈등의 정도가 강하며, 부모의 갈등 지각은 자녀의 갈등 지각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느끼는 갈등이 클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부정적으로 된다.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당연히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 감소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와 마찬가지로 논리로, 자기효

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지역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삶의 질 수준이 약간 더 높았으나, 영향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



[그림 5]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경로분석

<표 8>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효과분석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부모 갈등 → 청소년 갈등	.38 (10.43)***	-	.38 (10.43)***
→ 자기효능감	-	-.05 (-3.27)**	-.05 (-3.27)**
→ 삶의 질	-	-.03 (-3.19)**	-.03 (-3.19)**
청소년 갈등 → 자기효능감	-.14 (-3.44)***	-	-.14 (-3.44)***
→ 삶의 질	-	-.07 (-3.35)***	-.07 (-3.35)***
자기효능감 → 삶의 질	.51 (14.92)***	-	.51 (14.92)***
지역 → 삶의 질	.09 (2.53)*	-	.09 (2.53)*

* $p < .05$, ** $p < .01$, *** $p < .001$, ()는 t 값

<표 8>은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이다. 부모 갈등은 청소년 갈등에 대해 [그림 5]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강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부모 갈등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간접효과도 효과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부적인 값으로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청소년 갈등이 매개변인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갈등의 삶의 질에 대한 간접효과도 비록 효과크기는 작았으나, 부적인 값을 보이며, 유의($p < .01$)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부모 갈등은 청소년 갈등과 자기효

능감을 통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갈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5]에서와 같이 부적인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있었다. 청소년 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효과가 부적인 값을 보였는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효과크기도 매우 크고 정적인 효과계수를 나타내었다. 지역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정적인 값을 보이며 유의하였으나($p < .05$), 효과크기는 크지 않았다.

[그림 5]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 8>을 통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부모 갈등이 청소년 갈등을 매개로 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 부모 갈등이 청소년 갈등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청소년 갈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이 모두 의미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만이 아니라, 부모 갈등과 청소년 갈등이 간접적으로 매우 의미있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지역, 부모의 기대, 부모자녀갈등, 자기효능감의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도시 부모는 농촌 부모보다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으며, 자녀와 갈등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도시 청소년은 농촌 청소년보다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 및 객관적 학업성적이 더 높았고, 삶의 질은 약간 더 높았다.

둘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업기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기대가 매우 높고($P = .44$, $p < .001$), 나아가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객관적 학업성적이 높고 주관적 성취지각이 긍정적이었다. 지역은 객관적 학업성적에 대해 영향이 있었으나, 주관적 성취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역($P=.18$, $p<.001$)보다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P=.21$, $p<.001$)이 객관적 학업성적에 대한 직접효과가 컸다.

셋째,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도 감소시켰다. 지역도 삶의 질에 영향이 있었으나, 지역보다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훨씬 강력한 직접효과($P=.51$, $p<.001$)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가정한 경로들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역 변인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경로 외에는, 모든 경로계수의 방향이 가정된 경로모형([그림 1], [그림 2] 참고)과 완전히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종합될 수 있다.

첫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삶의 질 형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를 증진시켰다([그림 3] 참고). 뿐만아니라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의미있는 간접효과가 있었다(<표 5>, <표 6> 참고). 또한 부모자녀갈등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고,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도 감소시켰다([그림 5] 참고). 뿐만아니라 부모자녀갈등은 삶의 질에 대해 의미있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표 8> 참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관된 것이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박영신 외, 2004; Bandura et al., 1996) 및 삶의 질(김현철 외, 2007a; Park, 2008)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이러한 결과들과 일치하여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학업성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도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즉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직접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고([그림 3], [그림 4] 참고), 또한 부모의 기대 및 청소년의 기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중개 역

할을 하였다(〈표 5〉, 〈표 6〉 참고).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직접 삶의 질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그림 5 참고), 부모자녀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간접 효과가 있었다(〈표 8〉 참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 하에서 이미 검토된 바다. 즉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대해(Kim & Park, 2006; Zimmerman et al., 1992),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해(박영신·김의철, 2009; 박영신 외, 2010; Zimmerman & Cleary, 2006), 강력한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누적된 검증 결과들은 자기효능감 구인이 인간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andura, 1997)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가정했던 경로의 방향이 부분적으로만 검증된 결과가 한 가지 있다. 즉 지역변인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되었다(그림 11 참고). 그러나 실제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된 경로가 부분적으로는 긍정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부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를 객관적 학업성과 주관적 성취지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을 때, 지역효과가 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변인은 객관적 학업성적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나, 주관적 성취지각에는 의미있는 영향이 없었고 경로선이 삭제되었다.

객관적 학업성적에서는 지역이 학업성취도에 의미있는 영향력이 있어, 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더욱 객관적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라 객관적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강상진, 2010; 김성숙, 2010)과 일치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객관적인 학업성적은 분명히 도시 또는 농촌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p < .001$), 그러한 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성취지각은 지역의 영향과 무관하다($p > .05$)는 점이다.

2.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

이 연구의 제한점을 검토하고,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측면들을 고려하면

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각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 객관적 학업성적에 대한 측정이 학생들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를 객관적 학업성적과 주관적 성취지각으로 구분했을 때 지역의 효과가 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 변인이 왜 객관적 학업성적과 주관적 성취지각에 대해 다른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한 논의는 물론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학업성취도 변인을 다룰 때 객관적인 학업성적과 주관적인 성취지각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이 연구의 결과는 시사한다. 이 연구의 변인들 경우에 객관적인 학업성적이나, 주관적인 성취지각이나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은 모두 의미있는 것으로 일치하였으나, 지역의 영향은 달리 나타났다는 사실은, 투입되는 변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학적 연구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지각 간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측정변인의 선정과 측정방식이 객관적인 지표이나 주관적인 지표이나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학교환경과 관련된 변인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 변인과 더불어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심리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과 관계 규명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는 자녀 성취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김의철·박영신, 2008),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에 기반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삶의 질이 이러한 변인들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교사영향 친구영향 학교풍토 등 학교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다루지는 않았으므로, 청소년 학업성취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전체 변량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변인과 더불어 학교환경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셋째, 도시와 농촌 지역 청소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청소년 일탈행동의 면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 형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와 일탈행동 형성

과정에 지역 변인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의 범위를 넓혀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대된 주제에 대한 검토는 도시와 농촌 지역 청소년의 심리행동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넷째, 지역 변인을 도시와 농촌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내에서도 학군에 따라 각 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심리 행동특성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지역주민들이 인정하는 소위 교육특구가 있다.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는 교육이주에 대한 강열한 열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주는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 내의 상대적 빈곤지역에서 교육특구로의 이동으로 연이어진다. 한국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교육특구에서의 교육이 실제로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분석이 있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시 지역 내에서도 지역사회 환경 요인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지·방은령·박정선(2006)이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저소득 지역일수록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해환경과 무질서도가 높았으며, 유해환경과 물리적 무질서도가 청소년 비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 기대나 부모 갈등만을 다루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문화보편적인 변인들만이 아니라 문화특수적인 측면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인재(2006)가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개발한 결과에 의하면,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이라는 요인들이 규명된 바 있다. 박영신·김의철·한기혜(2003)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지각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의 대표적인 이유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죄송함의 이유로는 순종하지 않음과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침 및 학업에 소홀함이었다. 부모의 희생, 자녀의 죄송함, 순종, 학업충실과 같은 이러한 구인들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토착심리의 단면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부모의 희생,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죄송함이 청소년 자녀의 성취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해 보면 흥미로운 것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영신·김의철·정갑순(2004)의 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에 대한 죄송함은 성취동기를 증진시키고, 높아진 성취동기는 공부하는 시간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학업성적이 향상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은(Kim & Park, 2006; Park, 2008) 한국 학생들의 세계가 주목하는 높은 학업성취 현상과 삶의 질 관련 심리에는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의 심리적 매커니즘이 매우 독특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문화특수적이고 토착적인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변인들을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보다 심도있는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이 연구는 한국 사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해 볼 때 소외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나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 청소년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궁극적인 관심이 있었다. 도시와 농촌을 직접 비교한 결과(〈표 2〉, 〈표 3〉 참고)나, 도시와 농촌지역의 상대적 효과를 검증한(그림 3, [그림 5], 〈표 5〉, 〈표 8〉 참고) 결과를 통해,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에서 지역차이 및 지역의 영향이 뚜렷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농촌 지역이 사회환경적으로 주어지는 명백한 한계 속에서도, 가정에서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서 지역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가 높은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고, 자녀와 갈등을 줄이며,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지역변인보다도 훨씬 강한 영향력을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로 교육이주를 하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농촌에 뿌리내리며 살아야 하는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을 제공하는 경험과학적 정보이기도 하다. 농촌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의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노력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농촌지역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 성취와 발달에 불리함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비록 농촌 지역에 거주해도 가정 내에서 부모가 높은 교육적 관심을 갖고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를 가지며 갈등이 적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를 증진하며 삶의 질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농촌보다는 도시, 대도시 중에서도 특정 학군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녀야 일류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학부모들의 신념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이경숙 외, 2010),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화’는 점점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신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희망의 씨앗을 보여준다. 무조건 희망적인 것은 아니고, 부모의 관심과 기대, 갈등이 없는 화목한 가정과 같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지역차를 극복하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지역 구성원들의 성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기회구조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개인 차원의 노력을 초월한 보다 조직적이고 사회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상진(2010). 5.31 교육개혁 이후의 고교간 교육격차 추세 분석: 1995-2010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심포지엄. 연구자료 ORM 2010-55.
- 강태중(2007). 학업성취도의 지역 차이 분석: 인구 이동의 영향을 고려한 시도. 한국
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 315-344.
- 김선엽(1995). 한국 사회의 지역문제와 청소년. 한국청소년연구, 제6권 제2호, pp. 5-16.
- 김성숙(2010).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현황: 지역별 학력 차이와 학교특성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결과 분석: 학력차이
요인 탐색과 대응방안. 연구자료 ORM 2010-14.
- 김영지·방은령·박정선(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 김의철·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4호, pp. 973-1002.
- 김의철·박영신(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4권 제1호 특집호, pp. 63-109.
-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3권 제1호, pp. 79-101.
- 김의철·박영신·김경자(2011). 청소년과 부모의 미래성취의식: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과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pp. 29-60.
- 김현철·김은정·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2006). 청소년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철·김은정·최연혁·윤인진·이선이·박천식·Quenzel, G., Conway -Turner,
K., & Matsuda, S.(2007).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민무숙(1993). 고교생 또래문화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2호, pp. 31-47.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Lange, E.(2009). 장애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2006).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2010).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 심리특성 차이 분석: 생활 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 pp. 79-113.

박영신 · 김의철(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1호, pp. 37-54.

박영신 · 김의철(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2권 제4호, pp. 801-836.

박영신 · 김의철(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5권 제3호, pp. 399-429.

박영신 · 김의철 · 김영희 · 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5권 제1호, pp. 57-76.

박영신 · 김의철 · 민병기(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pp. 63-92.

박영신 · 김의철 · 박영균(2010).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는가?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제3호, pp. 533-559.

박영신 · 김의철 ·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3호, pp. 37-59.

박영신 · 김의철 · 한기혜(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9권 제2호, pp. 127-164.

- 손승영(2009).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부모의 기대와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 57-84.
- 오성배(2004). 지역간 학업성취도 격차 원인 분석: 지역 효과와 학생이동의 영향 탐색. *한국교육*, 제31권 제2호, pp. 169-192.
- 이경숙 · 김종혁 · 김민남 · 김부태 · 윤선진 · 이상원(2010). 교육과 이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대구 경북 학부모 면담 분석. *한국교육*, 제37권 제2호, pp. 5-30.
- 전신현(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7권 제2호, pp. 63-82.
- 최인재(2006).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창욱 · 권일남(2004). 청소년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Bandura, A.(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2006). Adolescent development from an agentic perspective.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pp. 1-43).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Vol. 67, pp. 1206-1222
- Kim, U., & Park, Y. S.(2006).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41 No. 4, pp. 287-292.
- Park, Y. S.(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Park, Y. S., & Kim, U.(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Keynote address at the 2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ross-Cultural Psychology, August 5, Xi'an, China.

Wiedenfeld, S. A., O'Leary, A., Bandura, A., Brown, S., Levine, S., & Raska, K.(1990). Impact of perceived self-efficacy in coping with stressors on components of the immune syst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pp. 1082-1094.

Zimmerman, B. J., Bandura, A., & Matinez-Ponz, M.(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29, pp. 663-676.

Zimmerman, B. J., & Cleary, T. J.(2006). Adolescents' development of personal agency: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ory skill.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p. 45-69).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ABSTRACT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among Urban and Rural Students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Residence, Parental Expecta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Parent-child Conflict and Self-efficacy

Park, Young-Shin* · Park, Young-Kyoon** · Kim, Ui-Chol*** · Han, Kee-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students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residence, parental expecta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parent-child conflict and self-efficacy. To test and explore the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samples, a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1,920 respondents (336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an urban area and 304 students living in a rural area) and their parents (672 living in an urban area and 608 living in a rural area) who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first three authors which also included Bandura's self-efficacy scale (Bandura, 1995). Those respondents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of six different provinces (Gyeonggi, Chungchung, Jeonla, Gyeongsang, Gangwon and Jeju) and also Seoul for the urban sample were sel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liability of the scales varied from $\alpha = .79 \sim .87$. Firstly, the parents of students living in urban areas had higher expecta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than the parents of students living in rural areas. As for the issue of parent-child conflict, there were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 Senior Researche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ample groups. Secondly, students living in urban areas had higher academic aspirations, higher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grade and a higher overall quality of life than students living in rural areas. Thirdly, parental expect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the students' own academic aspirations and self-efficacy were predictive of higher academic grades. Residency influenced objective academic grades to some extent but it was not predictive of subjective achievement. Fourthly, parent-child conflict and low self-efficacy had a somewhat negati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for all students. Self-efficacy had a positive influence and residency had a modest influence upon quality of lif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in term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for students living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residency, academic achievement, quality of life, parental expectation, parent-child conflict, self-efficacy

투고일 : 4월 18일, 심사일 : 6월 16일, 심사완료일 : 6월 24일

